

## 월요광장

## 새해에는 자녀의 나이만큼 성장하는 부모가 되길



김경란  
광주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끼리 인사를 나누는 첫 마디는 “아이가 몇 살인데요?”로 시작됩니다. 부모님의 연령과 상관없이 아이들의 나이나 학년이 같으면 말이 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7~8개월 경이면 한창 낮가립이 심한 때이니 낮가립에 대해 제일 궁금하시겠지요? 또 아이가 3살 정도라면 ‘미운 3살’이라고 하니 부모님의 머릿 속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폐를 부리지 않고, 고분고분 말을 잘 들 수 있을까?’가 고민거리일 것입니다.

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시기에는 자녀의 ‘새로운 생활에의 적응’ 그리고 사춘기 자녀의 부모님은 ‘도대체 우리아이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며 도저히 아이에 대해 알 수 없어 정말

근심이 많으시지요? 이렇게 부모의 생활과는 상관없이 아이의 연령에 따라 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고민거리는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나이의 모든 아이들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가장 힘겨워하는 시기 중 하나는 사춘기 아이를 키우실 때입니다. 그런데 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뇌 발달에 대해 살펴보면 사춘기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평균 10~12세에는 그 동안 사용하지 않던 뇌의 영역을 가지치기하면서, 성인이 되어서 필요한 뇌 영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뇌 활동이 매우 활발해지는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또 10~12세부터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전두엽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데 그동안 배워서 아는 지식은 많지만 이것을 소화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미약하기 때문에 아이들 자신도 감당하기 어려워 혼란스러워합니다. 마치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었지만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소화불량 상태가 된 것입니다.

지금처럼 의학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 인간의 뇌에 대해 알 수 없던 때에도 어린 아기 때부터 인간의 성장과정에 관심을 갖고 연구한 매슬로우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에서 각 시기마다 갖는 욕구를 5단계로 나누고 이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유나 우유를 먹고 그 이후에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이 가진 욕구도 첫 번째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두 번째 단계의 욕구를 위해 노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배고픔과 수면, 배설 등 생리적 욕구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이 편안하다는 것을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이 외톨이가 아니고 가족이나 학교, 친구들의 집단에 속해있으며 이 집단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다는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귀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자아존중감의 욕구입니다.

이전의 4단계의 욕구를 모두 체운 이후에 서야 마지막 5번째 단계로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이를 위해 인생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발휘된다고 합니다. 혹시 자녀가 어린 아기가 아닌데 좋은 음식과 안락한 잠자리만 준비해주는 첫 번째 단계의 생리적 욕구만 충족시켜주고 계십니까?

이제는 성적이 나쁘면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자녀가 인정과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못해서 다음 단계의 욕구가 허기진 상태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그렇지 뭐! 방학 때 놀지 말고 열심히 공부했지!” “이래 가지고 도대체 네가 뭐가 되려고 그러니?”라는 말씀을 하자는 않으시지요?

이제부터는 부모님께서 아이의 나이만큼 성장해야 합니다. 자아존중감을 가진 아이 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는 욕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말을 할 때 칭찬할 수 있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아이의 모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꼭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더라도 “네가 뒤집기를 처음 하던 날에는…” “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에는…” 등 자녀의 어린 시절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확인할 것입니다.

“네가 태어난 날, 온 가족이 얼마나 감격 했는데”라고 말씀해주세요. 특히 아이가 어렸을 때 잘했던 일이나 칭찬받았던 일들로 아이에게 자주 이야기 해주면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안전의 욕구,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 자아존중감의 욕구가 다 채워진 자녀는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 법조칼럼

## 법 없이도 살 사람



강성두  
변호사

우리는 흔히 착한 사람을 칭할 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혹자들은 ‘법이 필요 없는 사회’를 지향하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만들기보다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을 양성해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깨끗한 사회가 되길 바라는 새해 바람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법이 없어도 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법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된다면 어떨까요 생각해봅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다시 새로운 무언가를 할 엄두가 나지 않는 필자

의 개인적인 안타까운 사정(?)을 떠나서 일단 그런 사회는 우리의 희망 속에나 있는 비현실적인 사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현실적이고 불가피한 이유를 들어볼까 합니다.

법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필요에 의해 만든 규칙입니다. 또한 그 규칙이 유효하게 작용되도록 모두의 동의하에 강제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법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무엇을 해야 한다’거나 ‘무엇을 해도 좋다’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법에 대해 갖고 있는 반감은 이러한 금지규범의 성격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각을 바꾸어보면 이것은 여기에서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유로 많은 도덕적 비난을 받는 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금지하는 법 규정이 없다면 그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하거나 이를 금지할 수 없습니다.

다. 단지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면 어떤 행위에 대해 이를 규율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 수 있을 뿐입니다.

법은 우리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의 이익을 위해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말할 뿐입니다. 법이 규율하는 행위는 그렇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나’의 이익을 향유하며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해 그 자유가 ‘남’ 즉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행동이 될 수 있을 때 이에 대한 금지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법(法)이란 한자를 풀어보면 물 수(水)변에 갈 거(去)를 합친 글입니다. 이는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를 물 흐르듯 순리대로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 법의 역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듯 법은 사회가 순리대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을 제재하기 위해 만들어주고 보호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약간 극단적이지만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 합니다.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도덕률’은 예외가 없으며 아무리 시대와 상황이 변해도 이러한 도덕률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에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은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지만 때론 어떤 상황에서는 이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행위들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허용되기도 하고 금지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점이 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갑오년 새해엔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 이 많은 거야?’하는 생각보다는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그 외의 것은 모두 할 수 있고 그래야 ‘나’, ‘너’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을 바랍니다. 결국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은 ‘법’이 없으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평온한 사회는 ‘법’이 만들어주고 보호해주시기 때문입니다.

## 기고

## 마을 공동체 사업, 주민자치 마중물로



김강식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장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진일보한 주민자치회를 전국 31곳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다.

시범지역 중 하나인 운남동의 전체 주민 3만4000여 명 중 98.4%가 아파트에서 산다. 운남동이 시범 지역으로 꼽힌 것은 여느 아파트 단지처럼 이웃과 소통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주민들의 교류와 참여가 활발하기 때문이다.

아파트마다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으로 아파트 입주자회의를 구성해 규약을 만들고 재정을 마련해 공동체 사업을 꾸리고 있다. 주민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작은 도서관 운영, 안전지도 제작,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한다. 또 다른 아파트 단지 주민과 함께 1000여 명이 넘게 모이는 축제도 직접 기획해 함께 즐기고 있다.

이런 문화가 있어서 운남동 주민자치회에는 보다 살기 좋은 마을, 이웃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마을 리더들이 모여들게 됐다. 물론 위원 선정은 공개 모집과 엄정한 면접 심사를 통한 결과물이었다.

보다 좋은 마을을 만들자는 운남동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열정과 실천력이 뛰어난다. 그동안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과도 두텁다. 여기에 법적으로 마을 운영과 관련한 권한을 크게 확보했다. 필자가 동장으로서 운남동 주민자치회의 미래를 낙관하는 이유다.

운남동은 아파트들의 주민자치와 공동체 사업에서 마을의 주민자치를 찾아 가야 할 것 같다. 아파트의 주민자치를 마을 단위로 지역 단위로 연대하여 확대하여 나가는 것이다.

주민자치의 출발은 마음 편히 이웃과 함께 하고, 재미를 느끼며 참여하도록 ‘평식’을 깔아야 한다. 명석을 끓는 것은 행정의 끝이다.

광산구는 민선 5기를 맞아 주민참여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중간지원조직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해 주민들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돋보인다. 또 주민참여 예산제와 마을지원 공모사업 등을 추진해 보다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나서는 주민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운남주민자치회의 경우 주민들의 자발적인 공동체 활동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협법적 기반(조례)도 구축했다.

부원, 군인, 회사원 등 기타 봉급수령자들은 ‘월급만으로 보험료를 산출·부과’하면서 왜 연금 수령자에게만은 이에 준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또한 올해에도 금융소득이 연 4000만원 이상인 연금 수령자에게는 이 소득 역시 합산한다고 하니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관계기관에서는 연금 수령자들의 불만이 많

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민주사회란 자유와 평등, 준법과 노동, 의무와 책임으로 살아가는 사회임을 안다면 불평등한 법은 하루빨리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불만이 점점 쌓이는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라 할 수 없다. 하루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정종순·광주시 북구 문홍동

## 연금수령자 건강보험료 산출 기준 이해 안돼

나는 최근 35년간 근무하던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연금 4000만원 이상의 수령자이므로 작년 8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매월 21만원씩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

그런데 관계기관에 문의해본 결과 현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산출 근거가 ‘개인 소유 모든 부동산과 자동차, 연금 총액’을 합산하여 부과됨을 알았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않은 점은 월급을 수령하는 모든 공

## 社說

## 호남고속철 개통, 지역경제 역기능 막아야

을 연말이면 광주에서 서울까지 3시간 걸리던 호남고속철도(KTX 호남선) 가 1시간33분으로 단축된다. 광주를 기점으로 서울 90분대, 전국 주요 도시도 3시간 내 이동이 가능해 반나절 생활권에 접어드는 것이다. 이는 대도시간 교류가 활발해지는 한편 무한 경쟁에 돌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민들은 먼저 호남선의 대명사였던 호남선이 고속화되면 그 자체로 위인을 삼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교통 편의가 급격히 개선되고, 생활 영역이 확대되면서 시간적·경제적 실익도 주어지게 된다. 지역적인 큰 틀에서 보면 아시아문화전당으로의 관광객 유도와 남도의 즐길거리·볼거리·먹거리 등을 통해 관광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긍정적 효과에 앞서 우려되는 것은 부정적 효과도 많다는 점이다. 수도권으로의 ‘빨대 효과’ 때문이다. 국내 사례를 보더라도 대구는 KTX 개통 후 의료, 쇼핑 등의 분야에서 수도권으로

역류하는 현상을 보였으며, 울산의 경우 부산으로 원정 쇼핑이 급증했다고 한다.

그런 면에서 호남선 개통 이전에도 서울 쪽에 접종됐던 지역 의료와 교육 분야 유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료를 보면 지난 2012년 광주지역 환자의 20%, 전남의 30%가 서울과 수도권으로서 진료를 받았고, 그에 따른 진료비만 2000억 원에 달한다. 지역 인재의 역외 유출도 타지역에 비해 4배나 된다고 하니 고속철 개통 이후 그 심각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광주시와 전남도, 각 자치단체는 우선 관광분야에 대해 속박업소 확충과 종사자들의 서비스 향상 등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대학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은 병상 확대 등 인프라와 진료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당국도 공교육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KTX 개통이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 프로그램 수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광주고법은 구합 26일 항소심에서 피해자 증거자료로 제출한 속옷에서 정씨의 정액이 검출되지 않은 점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8개월여의 재판과정에서 부인과 혼인과 헤어지고, 사업은 망했으며, 대학에 다니던 자녀도 휴학하는 등 ‘만신창이’가 되었다.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지 말라’는 법언(法諺)은 언제 어디서든 유효하다. 수사 기관과 사법당국은 피해자 보호 의무와 함께 피고인의 인권보호 의무도 함께 진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번 고법 판결은 인권의식을 재무장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아니면 말고’식의 수사와 미리 판단해 단죄하는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 국민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검·경·법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야 할 것이다.

## 無等鼓

자고로 성군(聖君)은 민심을 살피기 위해 미복잠행(微服潛行)을 자주했다.

조선 성종은 한두 명의 무예별감(경호원)만 데리고 단신 보행을 즐기기로 유명했다. 어느날 밤 성종은 어느 때와 다름없이 운종가(지금의 종로)로 나섰다가 청계천 광교에서 쪼그려 졸고 있는 40대 백성이 만났다.

경상도에서 올라온 김희동이라는 속장수였다. 여관을 잡지 못해 다리 밑에 밤을 새우던 그는

“임금님이 어질고 착해 백성들이 잘살니 다. 그래서 해삼과 전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두이추는 지금도 베이징에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얼마 전 베이징 도심 만두가게를 찾아 화제를 냈다. 아무런 예고없이 흔하게 볼 수 있는 만두집에 들어 국민들과 함께 21위안(약 3600원) 어치를 사먹었다. 민심도 파악하고, 중국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대내외에 전명하는 효과도 있다.

미복잠행은 미디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불통의 이미지로 청해를 보낸 박근혜 대통령도 올해는 형식과 차례를 헤어버리고, 저자거리로 나서 봄이 어울린지.

/정필수 사회2팀장 bungy@kwangju.co.kr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鎭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	